

한국축구 U-20 월드컵 도전사



한국 U-20 대표팀은 FIFA U-20 월드컵에서 다시 4강 무대를 밟기까지 꼭 36년이 걸렸다. 2013년 터키 대회 당시 권창훈(10번)이 헤딩 슈트를 날리는 모습.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1983년〉
박종환 사단 첫 4강 신화
남북 단일팀 8강서 무릎
 〈1991년〉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다. U-20월드컵은 성인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과 달리 연령별 대회여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 FIFA가 주관하는 대회는 어느 대회를 막론하고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다. 특히 예비 스타의 경연장인 U-20월드컵은 대회 수준이 높다.

한국이 FIFA 주관대회에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건 1983년 멕시코세계청소년대회다. 처음으로 본선 조별리그를 통과한 박종환 사단은 우루과이를 꺾고 FIFA 주관대회로는 첫 4강에 올랐다. 당시는 16개국만 참가했을 때라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곧바로 8강이었다. 신연호, 김판근, 김종부 등 한국 축구를 이끌 기동들이 탄생한 대회이기도 했다. 이후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1991년 포르투갈 대회에선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4강에 도전했지만 8강서 브라질에 1-5로 패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한국은 2009년 이집트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본선 진출에 실패한 2015년 뉴질랜드 대회를 제외하고는 5회 연속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이끈 2009년 대회와 이광중 감독이 지휘한 2013년 대회에선 나란히 8강에 올랐지만 아쉽게 4강에는 실패했다. 결국 정정용 감독의 U-20대표팀은 1983년 이후 무려 36년 만에 다시 4강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멤버 구성이나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더 높은 곳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FIFA 주관대회의 범위를 남자축구 전제로 확대할 경우 이번 U-20대표팀 성적은 남자축구로는 3번째, 남녀 통틀어서는 5번째 4강행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을 빼놓을 수 없다. 히딩크 감독의 한국대표팀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차례로 물리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여자축구도 연령별 대회에서 성과를 냈다. 2010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U-17 여자월드컵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국이 FIFA 주관대회에서 첫 우승한 대회다. 그해 U-20여자월드컵에서도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연도	한국 성적	우승
2019	4위 확보	?
2017	16강	잉글랜드
2015	본선진출 실패	세르비아
2013	8강	프랑스
2011	16강	브라질
2009	8강	가나
2007	조별리그 탈락	아르헨티나
2005	조별리그 탈락	아르헨티나
2003	16강	브라질
2001	본선진출 실패	아르헨티나
1999	조별리그 탈락	스페인
1997	조별리그 탈락	아르헨티나
1995	본선진출 실패	아르헨티나
1993	조별리그 탈락	브라질
1991	8강	포르투갈
1989	본선진출 실패	포르투갈
1987	본선진출 실패	유고
1985	본선진출 실패	브라질
1983	4위	브라질
1981	조별리그 탈락	서독
1979	조별리그 탈락	아르헨티나
1977	본선진출 실패	소련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한국 U-20 대표팀이 9일(한국시간) 폴란드 비엘스코 비아와에서 열린 세네갈과 대회 8강에서 승부차기로 승리했다. 조영욱(18번)이 연장 전반 6분 팀에 세 번째 골을 안긴 뒤 환호하고 있다. 비엘스코 비아(폴란드) |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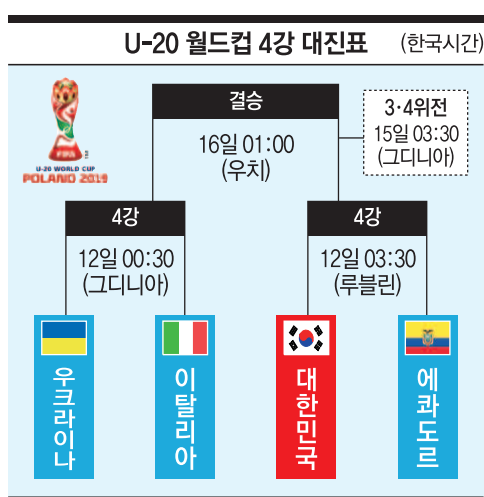
‘실수=실점’ 잊지 마라...역사는 수비서 이뤄진다

결승행 노리는 정정용호의 과제

세네갈전 3실점 모두 수비 실수 원인
 페널티박스 안서 집중력 잃지 말아야
 이들 휴식 체력 부담...이동 불리함도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월드컵에서 36년만의 4강행이라는 대업을 재현한 ‘정정용호’ 태극전사들은 기쁨에 도취될 시간조차 많지 않다. 고작 이들을 쉰 뒤 12일(한국시간) 에콰도르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새로운 역사 창조를 꿈꾸는 ‘한국축구 청춘들’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를 짚어봤다.

●수비 불안
 정정용호는 9일 세네갈과 8강전에서 연



장 후반까지 총 3골을 허용했다. 모두 수비수들이 문전에서 공을 쫓다가 상대 선수를 놓친 장면이 실점으로 연결됐다. 첫 실점부터 수비 불안이 노출됐다. 두 차례 실수가 나왔다. 전반 37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서 한국 수비진이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자 세네갈이 오른쪽 센터링을 통해 문전으로 공을 보냈다. 이때 수비수들이 공을 쫓느라 커버를 놓친 케빈 디아네가 왼발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1-1 상황에서 내준 실점 역시 아쉬웠다. 이재익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걷어내려던 공이 자신의 팔 위쪽에 맞으면서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자칫 이 실수 하나로 36년만의 4강행이 물거품이 될 뻔했다.
 연장 후반 추가시간 허용한 동점골도 상황은 비슷했다. 마마두 단파가 왼쪽으로 파고드는 사이 아마두 시스가 문전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서 있었고, 세네갈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날 한국이 내준 3골이 모두 유사한 실수로 나왔다는 점은 정정용호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었다.

●체력 걱정
 체력 역시 걱정거리 중 하나다. 태극전사들은 8강전에서 연장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펼치며 많은 체력을 소진했다. 극적인 승리 확정 직후에도 기쁨을 제대로 표하지 못한 정도로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선수들이 여럿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휴식 시간이다. 대표팀은 9일 세네갈전 이후 단 이들을 쉰 뒤 12일 에콰도르와 맞붙는다. 게다가 에콰도르는 4강전 장소인 루블린에 계속 머무는 반면, 한국은 비엘스코 비아에서 전세기를 타고 4강전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전술적인 측면 못지않게 태극전사들이 이틀간 얼마나 효과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에콰도르전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U-20 남미 챔피언...‘잔물 수비’ 강점

4강전 상대 에콰도르는 어떤 팀?

강호 이탈리아 상대로 1골만 허용
 지난달 평가전전 한국이 1-0 승리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의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전 상대는 에콰도르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이번 대회 개막 직전 있었던 지난달 18일 한 차례 격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평가전에서 한국은 이강인(발렌시아)의 골로 1-0으로 이겼다. 서로의 전력을 점검하기 위한 친선경기였지만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4강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에콰도르는 이번 대회 지역예선을 겸해

올해 2월 열렸던 남미 U-20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졌다. U-20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1승1무1패를 거두는데 그쳐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B조 3위로 어렵게 16강에 올랐다. 하지만 16강전에서 우루과이를 3-1로 격파했고, 8강전에서는 미국을 2-1로 꺾는 등 토너먼트에서 더 강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수비력이다. 강력한 우승후보 이탈리아에게 1골만을 내주는 등 한 경기에서 2골 이상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스리백을 주로 활용하는데 스피드와 높이를 두루 갖춘 수비수들이 인상적이다. 조직력도 또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5경기에서 4실점을 했다.
 공격에서는 아직 이번 대회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레오나르



한국 U-20 대표팀이 FIFA U-20 월드컵 결승진출을 놓고 격돌할 에콰도르는 남미 지역예선을 1위로 통과한 만만치 않은 상대다. 화력도 강하지만 탄탄한 수비는 더 인상적이다. 미국과 8강전에서 첫 골을 터트린 뒤 기쁨을 나누는 모습. 그나마(폴란드) | AP뉴시스

드 캠파냐(리버 플레이트)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19세인 그는 올해 남미 U-20 챔피언십에서 혼자 6골을 터트려 득점왕을 차지했다. 올해 성인대표팀에도 발탁돼 2경기를 소화했다. 캠파냐뿐 아니라 곤살로 플라타스(포르투갈), 조던 레사발라(인테렌디

엔테), 알렉산더 알바라도(아우카스) 등 개 인기와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공격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이번 대회에서 5경기를 치르는 동안 7골을 넣었다. 이중 1골은 일본 선수의 자책골이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옐로카드 관리도 만점 4강전도 ‘베스트 멤버’

(정정용호)
 어린 태극전사들의 경고 관리도 만점이었다. 한국 20세 이하(U-20)대표팀 중 세네

갈전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는 주전 골키퍼 이광연(20·강원FC)이 유일했다. 이광연은 후반 35분 상대의 페널티킥을 막는 과정에서 킥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움직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이력이 없는 그는

12일로 예정된 에콰도르와의 4강전 출전에 지장이 없다. 세네갈과의 경기 이전까지 옐로카드를 한 장씩 받았던 이재익(20·강원FC), 이강인(18·발렌시아), 전세진(20·수원 삼성), 오세훈(20·아산 무궁화) 등 4명은 8강전에 출전했지만 추가로 경고를 받지

않고, 경기를 마쳤다.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 받은 옐로카드 1장은 4강전부터 소멸된다. 큰 부상자가 없는 한국 U-20 대표팀은 경고누적 등으로 이탈하는 자원이 없기에 에콰도르와의 4강전에서 모든 전력을 쏟아낼 수 있게 됐다.
 최용석 기자